

# 네오아트센터 신년 기획전

3관: 유중희 <응결된 시간>

4관: 유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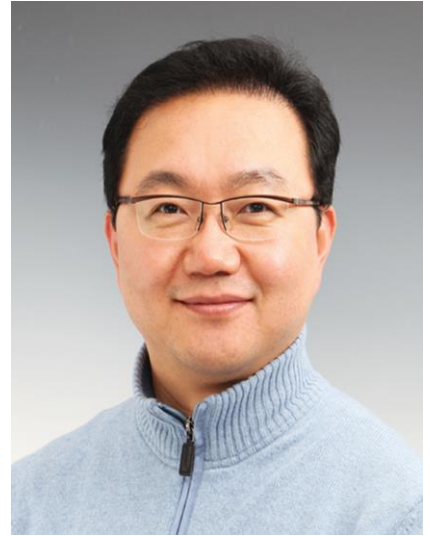
<경계 위에 새긴 부유  
(浮遊)의 흔적>

2026. 1. 14. WED — 3. 8. SUN

# 유중희

Yoo Joong Hee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박사 졸업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 졸업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 23회

단체전 / 단원미술제20주년 아카이브 단원본색전(안산문화예술의 전당)외 다수 참가

수상경력 /

1999 단원미술대전 대상  
1998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998 경기도 미술대전 최우수상 및 특선 3회  
1997 창작미술협회 공모전 대상 및 특선

기타 /

現 창작미술협회원, 경기미술협회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원,  
국립경상대학교 출강

前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 작품에서 표현되는 돌과 지문은 세계와 접촉하며 생성된 사건의 결과이다.  
그 반복 속의 미세한 차이는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

돌은 나의 출발점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침묵과 미세한 진동이 공존한다.  
캔버스 위에 젓소를 쌓아 올리는 일은, 단순한 표면의 준비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 응결시키는  
수행이다. 연필과 흑연으로 돌의 결을 따라가며 긁고, 닦고, 다시 쌓는 반복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숨결을 찾아낸다.

화면 속 돌은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매개이며, 사라진 시간의 형상이다.  
돌의 상처와 균열은 자연이 견뎌온 흔적이자, 내가 지나온 내면의 시간과 겹쳐진다.  
그 위를 더듬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된다. 결국 나의 작업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누가 기억하고, 누가 잊히는가. 돌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은  
우리 모두의 기록이며, 그 기록을 읽고 새기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 나는 믿는다.

지문은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몸이 세계와 접촉하며 발생시킨 형상이다. 그 형상은 본질의 표현이  
아니라 생성의 흔적이며, 존재가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물질적으로 드러낸다.

지문의 반복되는 패턴은 동일성의 재현이 아니라 차이의 산물이다. 각각의 용기 된 선은 미세한 조건의  
어긋남 속에서 형성되며, 이 차이는 사후적으로 수정되거나 환원될 수 없다. 나는 이 반복 속의 차이를  
통해 존재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생성의 흐름으로 사유한다. 존재는 닳아 있지만 결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형성 과정에는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다. 지문은 의식 이전의 몸이 세계에 반응하며 남긴  
흔적이며, 몸이 이미 세계 안에서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이때 몸은 주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계와 서로를 구성하는 감각적 장이 된다. 따라서 작품에 표현된 지문은 시각적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촉각의 기억이며, 몸과 세계,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분화되기 이전 접촉된  
결과이다. 본인은 이 형상을 통해 존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지문은  
세계에 의해 형성되지만, 동시에 세계를 다시 분절하는 표면이 된다. 이 역설 속에서 지문은 존재를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캔버스에 응결된 침묵의 서사(敍事)

"돌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우주의 역사가 응결되어 있다."

돌은 유중희 작가의 캔버스에서 단순한 정물을 넘어선다. 그것은 시간의 화석이자, 내면의 거울이며,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적 매개체이다. 갤러리 청주에서의 전시 오프닝에서 시작된 인연은 용인과 순천을 오가는 부부 예술가의 작업실 방문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나는 그가 캔버스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그리기'가 아닌, 일종의 '수행(修行)'임을 직감했다.

네오아트센터의 2026년 첫 기획전 중, 제3관에서 열리는 유중희 작가의 초대전 주제는 “응결(凝結)된 시간”이다. 이 주제는 작가가 캔버스 위에 수십 겹의 젓소를 칠하고 말리는 지난한 과정과 맞닿아 있다. 그는 흑연으로 돌의 결을 따라 긁고, 닦고, 다시 쌓아 올리며 보이지 않는 시간의 숨결을 찾아낸다. 작가 노트에 적힌 것처럼, 이는 "단순한 표면의 준비가 아니라 시간을 켜켜이 응결시키는 과정"이다.

그의 돌은 낯설다.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표면은 현미경으로 본 듯 섬세하지만, 동시에 뭉개지고 녹아내리며 현실의 경계를 이탈한다. 돌 표면에 나타나는 상처와 주름, 굴곡은 자연이 견뎠던 풍파이자 작가 자신의 삶의 궤적이다.

"느닷없이 뭉개지거나 녹아내리"는 돌의 변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우주의 섭리, 즉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는 돌을 통해 묵직하게 묻는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이번 3관 전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문(Fingerprint)' 시리즈다. 돌이 태고의 시간을 품은 거시적 우주라면, 지문은 지금 이 순간 세계와 접촉하는 미시적 신체의 기록이다. 작가는 지문을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몸이 세계와 접촉하며 발생시킨 형상"이자 "촉각의 기억"이라 정의한다. 화면을 채운 지문의 반복적인 패턴은 동일성의 재현이 아니다. 미세한 조건의 어긋남 속에서 형성되는 그 '차이'야말로, 존재가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동사임을 증명한다.

유중희의 캔버스 위에서 돌(자연)과 지문(인간)은 서로 다른 층위의 시간을 품고 있지만, 결국 3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응결된 시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수렴된다.

2026년 새해, 네오아트센터는 이 깊은 침묵의 웅변과 함께 문을 연다. 이번 신년 기획전은 유중희 작가의 무게감 있는 회화 세계를 필두로, 서로 다른 걸을 지닌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목격하는 자리다.

제3관이 유중희 작가의 '응결된 시간'으로 채워진다면, 제4관은 그의 아내이자 동료인 유명미 작가의 공간이다. 부부로서, 또 동료로서 서로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두 사람은, 돌과 물고기라는 서로 다른 소재를 통해 '관계'와 '소통', 그리고 '내밀한 세계'를 펼쳐 보인다. 견고한 돌의 시간(3관)과 유연한 생명의 유명(4관)이 나란히 배치되어 빛어내는 조화는 이번 전시의 백미다.

유중희의 캔버스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돌의 내밀한 세계를 더듬어야 한다. 그곳에는 작가가 땀으로 쌓아 올린 시간의 지층이 있고, 세계와 맞닿은 우리 자신의 지문이 찍혀 있다. 돌의 침묵과 지문의 온기, 그리고 금속의 리듬이 어우러진 네오아트센터에서 2026년 새해의 첫 감동과 사색의 시간을 만나 볼 수 있다.



## 같음과 다름

162x130cm,  
Graphite Powder & Acrylic on canvas, 2026



## 같음과 다름

162x130cm,  
Graphite Powder & Acrylic on canvas,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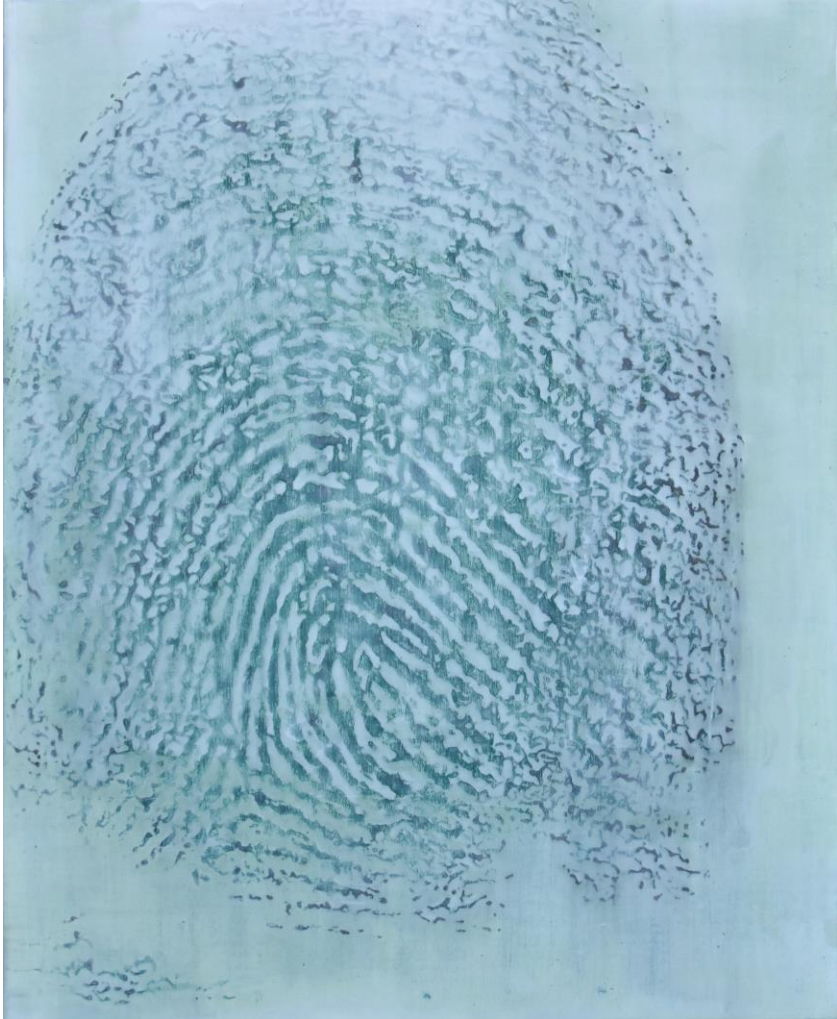
## 같음과 다름

65x53cm,  
Graphite Powder & Acrylic on canvas, 2026



## 같음과 다름

65x53cm,  
Graphite Powder & Acrylic on canvas,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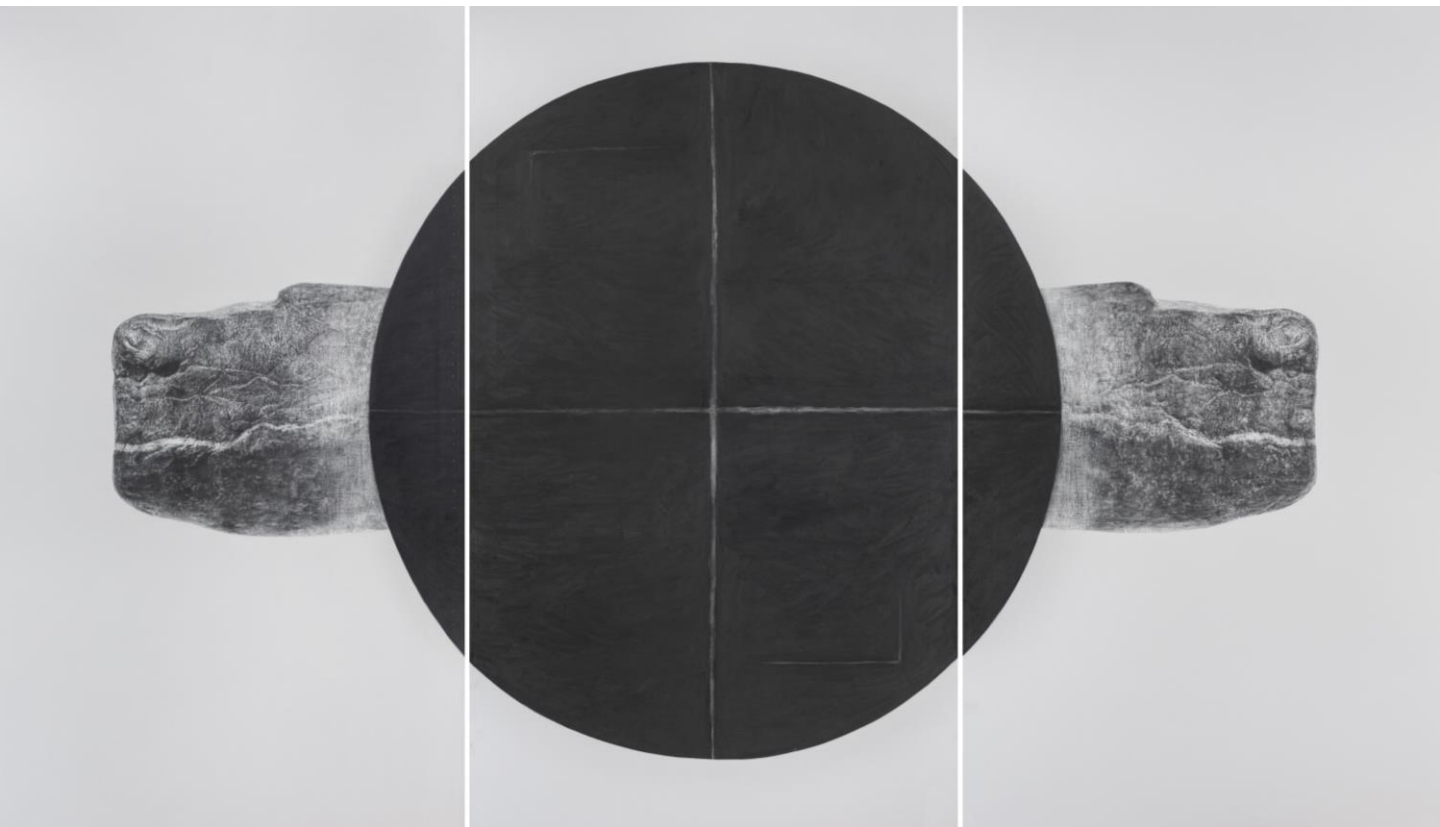
## 같음과 다름

65x53cm,  
Graphite Powder & Acrylic on canvas, 2026



## 같음과 다름

65x53cm,  
Graphite Powder & Acrylic on canvas, 2026



## 들추기와 감추기

194x336cm,  
Pencil, Acrylic on canvas, 2019



몽상\_달

70x35cm,  
Pencil on canvas, 2023

# 유영미

Yoo Young Mi

---



경기대학교 한국화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졸,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

개인전 /

AI시대의 필묵-다시 있다'(한벽원미술관,서울)

現代韓國畫 12人展 (Chisoku Art Museum, 일본 니카타)

Asia Contemporart show (Sia galley,홍콩)

한국으로부터의 문화편지(Shizuoka galley,일본)

'時精畫意, 월전을 그리다'(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천) 등 30여 회

단체전 / 2016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단원미술관, 안산)외 단체전 다수 참여

기타 /

現 거북이걸음회원, 어우름회원, 동서미술학회회원, 동양예술학회회원,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 나의 작업은 현대인이 마주한 ‘심리적 자폐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거대한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정작 개개인은 자신만의 견고한 어항 속에 갇혀 부유한다. ”

그동안 나는 스텐레스 철망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매체 위에 끝칼로 물고기를 그려왔다.

금속을 굽어낼 때 발생하는 저항감과 마찰음은 소통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현대인의 날 선 방어기제와 닮아 있다.

철망 위에 남겨진 거친 자욱은 수정할 수 없는 삶의 흔적이며, 한국화의 일획(一劃) 정신이 물질과 충돌하며 만들어낸 우연한 감정의 기록이다.

최근 나는 이 견고한 철망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폐기물인 종이 박스나 포장지, 캔트지나 화선지 위에 나무젓가락을 들었다.

세련된 도구 대신 선택한 나무젓가락의 투박한 선은, 자폐적 고립의 벽을 허물고 보다 날 것의 감정에 닿으려는 나의 시도이다.

종이 위에 번지는 묵의 흔적과 나무의 마찰은 그물에 갇힌 물고기가 아닌, 비로소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린 우리 시대 초상들의 생경한 고백이다.

# 어항 속 금룡(金龍)

필자는 15년 넘게 열대어인 구피를 개량하고 품평회에 출품하기 위해 30여 개의 어항과 씨름했던 지난날, 물고기는 유리벽 너머에서 나에게 침묵으로 말을 걸어오는 존재였다. 물속 세상의 고요한 치열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난 2023년 ‘갤러리 청주’에서 처음 마주한 유명미 작가의 작품은 강렬한 인력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차가운 금속성 망(網)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어이 빛을 뿜어내던 그 물고기들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오는 14일, 청주 네오아트센터 4관에서 열리는 유명미 작가의 초대전 '경계 위에 새긴 부유(浮遊)의 흔적'은 그 강렬했던 첫 만남의 깊이를 확인하는 자리다. 작가의 작품 속 주 소재인 ‘아로와나’는 공룡 시대부터 현존하는 고대 어종의 대표 격이다. 특히 황금빛 비늘을 번득이는 녀석들은 중국에서 ‘금룡(金龍)’이라 불리며,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영물로 추앙받는다.

작년 3월 전시를 앞두고 찾은 작업실에서 다시 만난 유명미의 아로와나는 세속적 욕망의 상징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작가는 캔버스 대신 공업용 여과 필터로 쓰이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철망을 선택했다. 그 위에 아크릴과 석채, 금분과 숯가루를 입히고, 다시 날카로운 끌칼로 긁어내는 지난한 수행(修行)을 반복한다. 작업실 가득 울려 퍼졌을 그 금속성의 마찰음은 소통을 갈망하면서도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시를 세우는 현대인의 방어기제이자 절규였으리라.

작가는 화려한 비늘 뒤에 숨겨진 이 현대인의 고독을 ‘심리적 자폐성’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이번 전시가 단순히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진단에 머물렀다면,  
나는 이토록 오래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유명미의 예술은 놀라운 존재론적 전환을 맞이했다. 그는 그토록 견고하던 철망과 끌칼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폐기물인 종이 박스와 포장지, 그리고 투박한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었다.

## “세련된 붓 대신 선택한 나무젓가락의 거친 선은 기교를 덜어내고 오직 ‘일획(一劃)’의 본질에 집중하게 합니다.”

작가의 고백처럼, 찢기고 번진 그 흔적들은 세공된 보석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다. 화선지를 보호하던 껍데기에 불과했던 종이 박스는 작가의 손끝에서 현대인의 소모적 일상을 증언하는 ‘살(Chair)’이 된다. 이는 철망이라는 ‘타의적 감옥’을 뚫고 나온 물고기의 거친 숨소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가가 ‘고립’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다. 예순을 맞이한 작가는 이제 고립을 단절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고립(Voluntary Isolation)’으로 재정의한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 작가에게 어항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가 된다. 2026년 신작 '경계의 기표'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파스텔톤의 몽환적 확장은 이 치유와 희망의 궤적을 선명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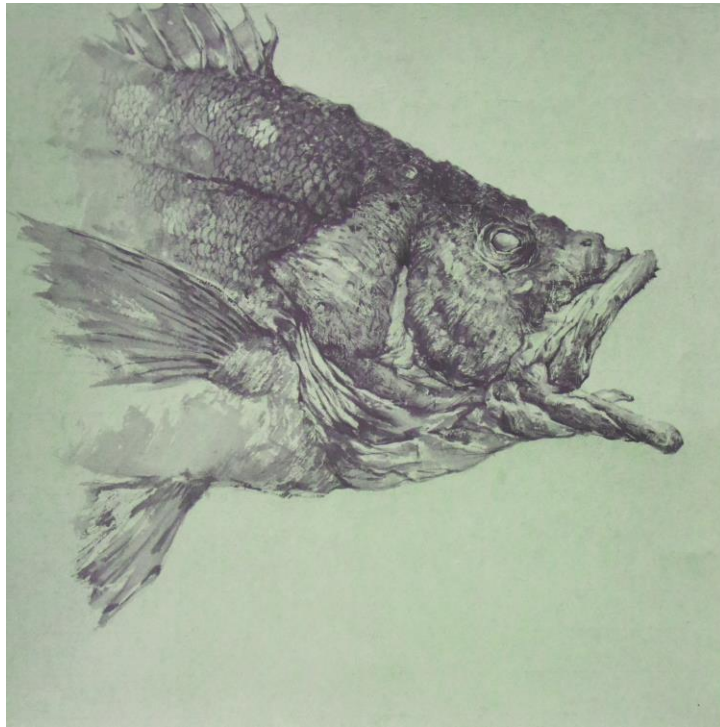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인 유중희 작가와의 동시 초대전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하다. 유중희 작가는 네오아트센터 3관에서, 유영미 작가는 4관에서 각각 독립된 초대전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서로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존중하는 부부이자 동료 작가로 남편인 유중희의 ‘돌’이 침묵과 영겁의 시간을 지탱하는 동안, 바로 옆관에서 유영미의 ‘물고기’는 찰나의 욕망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영미는 말한다. 훗날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작가와 관객의 영혼이 아무런 장벽 없이 만나는 ‘푼크툼(Punctum)’의 순간을 꿈꾼다고. 나는 확신한다. 네오아트센터 4관, 그 차가운 철망과 투박한 종이 박스 앞에서 당신은 금빛 아로와나 속에 감춰둔 당신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발적 고립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경계의 기표

73x73cm,  
하드보드 위에 스크레치, 2026



## 자발적 고립

33x33cm,  
화선지 위에 먹 드로잉, 2026



**자발적 고립**

55.5x40.5cm,  
하드보드 위에 스크레치, 2026



## 자발적 고립

55.5x40.5cm,  
하드보드 위에 스크레치, 2026



**자발적 고립**

50.5x26.3cm,  
하드보드 위에 스크레치, 2026



## 자발적 고립

30.5x14.3cm,  
하드보드 위에 스크레치, 2026

# 네오아트센터 신년 기획전

1관: 네오아트센터 소장전

2관: 배승수 <Piona: into bloom>

3관: 유중희 <응결된 시간>

4관: 유영미 <경계 위에 새긴 부유 (浮遊)의 흔적>

2026. 1. 14. WED — 3. 8. SUN